

# 전남 농공단지, 지역 경제 거점으로 거듭난다

### 보성 미력·무안 일로·강진 마량·진도 고군, 산업부 공모 선정 국비 214억 확보...청년문화센터 건립·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인 농공단지 패키지지원사업에 보성 미력, 무안 일로, 강진 마량, 진도 고군 농공단지가 선정돼 국비 214억 원을 받게 됐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단)이 추진한 '농공단지 패키지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사업이다.

2월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남 4개 농공단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14억여 원, 지방비 106억여 원 등 모두 320억 원이 투입된다. 보성 미력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무안 일로는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노후 공장 청년 진화 리뉴얼 사업을 진행한다. 강진 마량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 공장

청년 진화 리뉴얼, 진도 고군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농공단지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대상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 및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사업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 타 산업단지에 비해 불리한 여건의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농공단지 일제 조사를 벌여 농공단지 28개소에 대해 입주 및 분장 예방 등을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현재 64개소 중 59개소에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청년 인구 유입이 중요하다"며 "노후 산단 정주 여건 개선 및 청년 친화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영암 대불 국가산단 등 11개소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여수 국가산단 등 4개소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문화·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접수 전남도, 보험료 80~100% 지원

전남도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부담 보험료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전체 153억2500만 원이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8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이 있으며 장해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에선 13만3000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3만837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69억9830만 원보다 18% 많은 200억 59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청년들의 전남 관광 아이디어 찾는다 도, 26일까지 전국 관광콘텐츠 공모...입상자 '청춘어람' 참여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전남의 섬·해양 자원을 활용한 참신한 관광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2024 전남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남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중 18세에서 45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4월 26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공모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전남 연안 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워진다. 캠프, 차박, 여캄스 등 체류형 테마여행 코스부터 지역 명소나 특화자원을 활용

한 섬·해양 관광기념품까지 총 5개 분야 새로운 관광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우수 아이디어 20건을 선발해 총 12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최우수상 1건에는 전남도지사상과 250만원의 시상금, 우수상 3건에는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상과 각 1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장려상 6건과 입상 10건에도 각각 상장과 시상금이 지급된다. 입상자에게는 청춘어람 육성사업에 우선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청춘어람'은 청년이 만드는 여촌관광의 요람이라는 뜻으로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고 섬·해양 관광상품을 기획해 개발하도록 지

원하는 사업이다. 이석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섬·해양 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남 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jeonnam.go.kr)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ijnt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여수죽림1지구 토지공급·건축설명회 상업용지·단독주택용지 일반실수요자 최초 분양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지난달 29일 여수 한려마을읍금고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여수죽림1지구 토지공급 및 건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실수요자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에 공급 공고한 전남 여수 소라면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점포 겸용) 32필지, 준주거시설용지 17필지, 상업용지 4필지, 종교용지 1필지, 주유소용지 1필지 등 모두 55필지에 대한 전반적인 토지 공급에 대해 다뤘다.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에 9만8000㎡, 계획인구 약 1만4000명 규모로 조성되며, 여수시청 5분, 여천역(KTX) 12분, 여수산업단지까지 15분 내에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해 직주단지로 부상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처음 공급되는 단독주택(점포 겸용)·준주거시설·상업용지의 입찰은 오는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온비드(www.onbid.co.kr)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이뤄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여순사건 공정·신속한 사실조사 총력”

### 전남도, 조사단 직무역량 강화 이론편 교육·현장 답사

전남도가 지난달 29일까지 이틀간 2024년 상반기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직무교육을 실시,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를 다짐했다. **【사진】** 직무교육은 전남도,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요원 등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2월 31일자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접수 종료에 따른 사실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교육과 현장답사로 진행됐다. 1박2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최경필 여수10·19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여순사건 실무위원)의 '여순사건의 역사적 이해', 최성문·박수용 전남도 조사

관의 '사실조사 실무' 및 '심사사례, 면담조사 기법'을 주제로 한 강의,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여순사건 실무위원)과 함께 여순사건 발생 주요 유적지 답사 등으로 구성됐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사실조사 업무는 76년 전에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을 판단할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직무교육을 통해 사실조사 요원과 담당 공무원이 전문가의 노하우를 충분히 배우고 익혀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기를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소외계층 '행복여행' 지원 확대...1인당 16만원

### 도,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대상

전남도가 올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여행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된 인원은 여행사를 통해 당일 또는 1박 2일로 전남지역 여행을 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총 6000여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다. 전남도는 올해 시·군과 협력해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60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1인당 지원액을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

향하고,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동행 1인까지 지원한다. 또 장애인 참여 인원을 지난해 1000여명에서 올해 2배로 높였다.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하거나 무장애 관광상품을 실제 운영하는 여행사를 우대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6세 이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체·시각·발달·청각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이다.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신청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도, 이달말까지 접수

전남도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뉜다. 먼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소규모임업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구분해 면적·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육림업직불금도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구분해 면적·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